

“불길 속 영웅들에 따뜻한 한끼”...광주 식당 무료 식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인근 영업 소방·경찰 위해 손님들 안 받기도 이하영 사장 “작은 마음 보태고자” ‘선한 영향력’ SNS서 공감 자아내 지역민들도 ‘십시일반’ 복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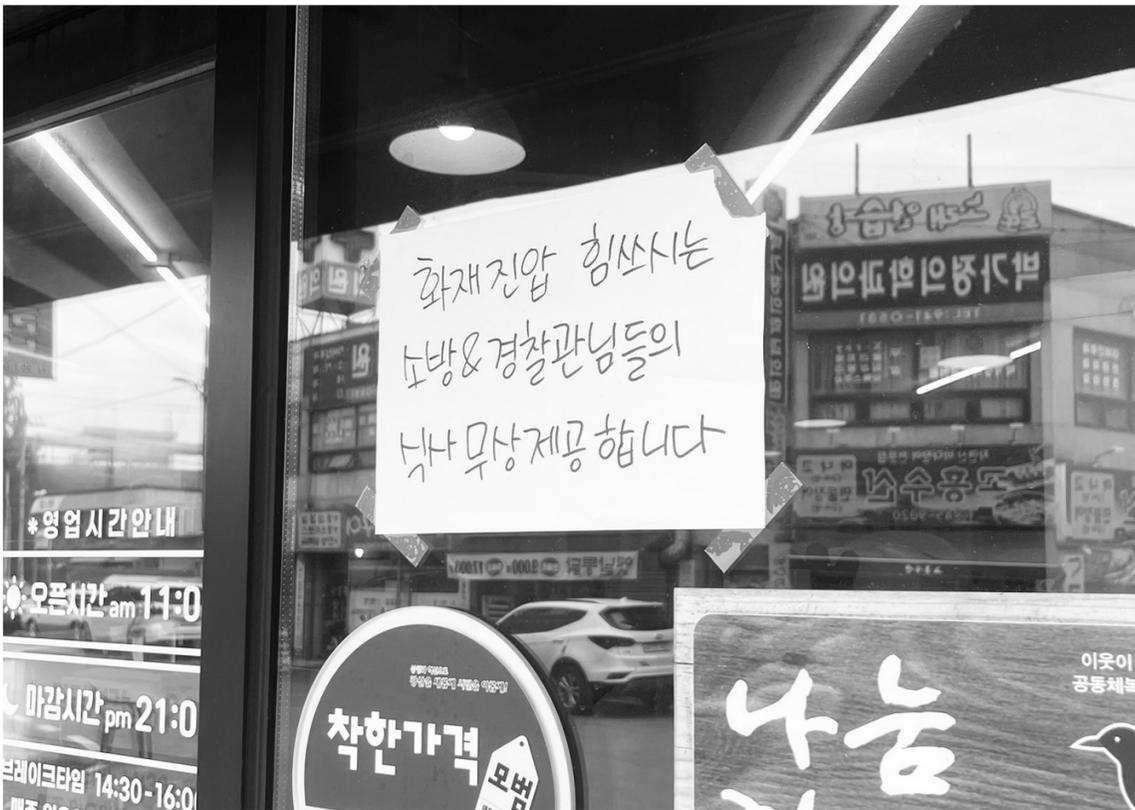
“불길 속에서 고생하시는 소방대원과 경찰관들을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19일 찾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의 한 식당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장사 준비를 위한 분주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었다. 오픈 시간에 맞춰 주방에서는 밥 짓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한쪽에서는 반찬을 정갈하게 담은 손놀림이 바쁘게 움직였다.

지난 17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약 200m 떨어진 이 식당은 화재 발생 직후부터 현장을 지키는 소방대원과 경찰관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지속되는 경기 불황에 인근 화재로 인한 매출 피해 우려까지 겹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 싶다’는 일념으로 따뜻한 한 끼를 정성껏 나누고 있다.

식당의 이하영(37) 사장은 “매장 근처에서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이 트럭 가득 생수를 싣고 화재 현장으로 달려갔다”며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전해들어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 사장 부부는 가게 창문에 ‘화재 진압에 힘쓰는 소방·경찰관들에게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일반 손님도 당분간 받지 않는다. 양해 바란다’는 내용의 안내



19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현장 인근 식당에 ‘소방대원과 경찰에게 식사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문을 바로 내걸었다. 진화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이날부터는 다시 일반 손님도 함께 받고 있다.

이 사장은 “화재 발생 초기, 식당을 찾은 소방대원 한 분이 ‘분진이 묻은 근무복을 벗고 들어가야 하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으셨다”며 “마음 편히 식사하실 수 있도록 그동안 일반 손님을 받지 않았고, 오늘부터

는 함께 모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평소에도 여유가 생길 때마다 꾸준히 기부를 이어 온 이 사장 부부는 이번에도 ‘선한 영향력’을 실천으로 옮겼고, 해당 사연은 동네 커뮤니티 플랫폼을 통해 알려졌다. 게시글 작성자는 “원래도 자주 찾던 단골집이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자주 가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게시글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며 많은 이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공동체를 먼저 생각한 진심 어린 배려에 “큰 울림을 받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이 사장은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분들의 노고에 비하면 정말 작은 도움일 뿐

이라, 관심을 받는 게 부끄럽다”며 “상황이 수습될 때까지 당분간은 계속 식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른 시일 내에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 부부를 비롯해 이번 화재 피해 복구를 위한 지역민들의 훈훈한 연대와 자발적인 나눔도 지속되고 있다. 고려인 마을은 전통 음식인 고려인빵을, 지역의 약품 유통업체는 건강기능식품을, 인근 식자재 마트는 생수를 지원하는 등 각계 각층이 십시일반 힘을 모아 이재민과 현장 대응 인력에게 간절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

복구도 관내 기업과 단체들의 후원을 받아 마스크 2800개, 소방관용 수분 보충제 240개, 컵라면 700개 및 각종 간식류 등 총 12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긴급 지원했다.

광산구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들 역시 화재 첫날부터 현장으로 달려가 힘을 보탤었다. 연인원 180여명에 이르는 봉사단은 화재 현장 인근에 설치된 텐트에서 소방대원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전달하고, 환경 정화를 돕는 등 연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강은숙 광산구자원봉사센터장은 “화재가 발생한 날 윤상원 열사 기념행사 자원봉사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화재 현장에서도 봉사에 나서는 등 많은 이들이 ‘광주정신’을 실천하고 있다”며 “부디 아무도 다치지 않고 현장이 조속히 수습되기를 바란다.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끊이지 않은 연기에 일상 붕괴... 주민들 “피해 심각”

주차 차량·농작물 검은 분진 쌓여 사흘째 연기 발생 목·눈 통증 호소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진화 작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계속되는 연기로 인해 공장 인근 아파트 주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9일 오전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앞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주민들은 계속해서 피어나는 검은 연기를 보며 걱정의 한숨을 내쉬었다.

주민들은 최대한 검은 연기를 마시지 않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건물의 문과 창문을 꼭 닫고 한곳에 모여 “불이 다시 커지는 것 아니냐”, “연기가 멈출 생각을 안한다”, “목이 너무 답답하다”며 걱정 섞인 대화를 주고받았고, 일부는 가족들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고 상황을 공유하기도 했다.

양찬호(26)씨는 “불이 거의 꺼져서 검은 연기가 멈출 줄 알았는데 다시 나는 것 같다. 목이 조금 아프고 눈도 따갑다”며 “검은 재들이 계속 날리는데 이미 난장판이 된 집들은 어떻게 치워야 할지 걱정되고 너무 불안하다”고 말했다.

아파트단지 지상 주차장에 세워진 수십대의 차량은 분진 피해를 입어 검은 얼룩들로 뒤덮였다. 주변 상가건물 창문이나 아파트 각 가구 창문에도 분진 피해가 발생했다.

주민들은 차에 뒤덮인 얼룩을 지우기 위해 양동이에 물을 퍼와 수건과 물티슈



19일 오전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는 가운데 인근 아파트 주차장 차량이 분진으로 얼룩져있다.

등을 이용해서 검은 재들을 지워내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였다.

이곳에서 만난 이재국(77)씨는 “손수건으로 차에 있는 분진들을 계속 지우고 있는데 영 사라질 생각을 안한다. 몇번을 닦아야 원래대로 돌아올지 모르겠다”며 “연기를 좀 마셔서 그런지 몸도 좋은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물수건 등을 이용해 몇 번을 닦아봤지만, 일부 얼룩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았다. 검은색 차량은 그나마 사정이 나아 보였으나 흰색이나 회색 차량은 멀리서도 눈에 띄는 정도로 얼룩의 흔적이 심했다.

이번 화재는 주민들의 생활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분진들로 인해 각종 채소에 검은 얼룩이 묻어 밭을 가꾸는 주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농작물을 재배하는 이성심(72)씨는 “농작물이 분진들로 인해 검게 물들어 버렸다. 공들여서 키웠는데 전부 못먹고 버리게 돼 마음이 너무 아프고 화가 난다. 피해 보상은 가능한 건지, 언제쯤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공장 인근 자영업자들도 ‘연기로 인해 손님들이 오지 않는다’, ‘예약도 다 취소돼서 매출 피해가 크다’, ‘준비해놓은 재료들은 어찌냐’며 불만을 내비쳤다.

관계 당국은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산구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직원 740여명을 비상근무에 투입하고, 화재 현장 반경 1km 내 아파트와 광주송정역을 중심으로 방진 마스크 1만5000개를 배부했다.

글·사진=이정준 기자

“금호타이어 화재, 시민 피해조사 및 대책 마련해야”

광주·전남시민사회단체 성명 발표 “투명한 실태 공개, 구조적 개선을”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 환경피해를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19일 성명을 내고 “광주시와 유관기관은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종합적인 대책 수립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는 “지난 17일 화재로 인한 유해 화학물질의 대기 중 방출이 가장 우려된다”며 “공장 화재로 방출되는 유해 화학물질 등이 연소하면서 대기 중으로 얼마나 퍼졌는지, 실측자료는 확보됐는지 등 객관적인 분석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산구는 과거 하남산단 TCE 유

출 사고를 계기로 화학사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한 바 있다. 매뉴얼의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며 “기존 매뉴얼이 대기 중 유해물질 확산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번 사고를 계기로 범위를 재정비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도시개발 방식에 대한 구조적인 재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향후 도시개발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 완충지 조성 등의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화재는 단지 기업의 재난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전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경고”라며 “정부와 광주시는 사고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원인 규명부터 구조적 개선, 환경 모니터링 및 주민 건강 보호 등 제도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승우 기자

금호타이어 화재현장, 김치점 주문 노쇼... 경찰 수사 나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관련, 음식을 주문해놓고 잠적한 ‘노쇼’ 사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남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남구의 한 음식점 업주 A씨로부터 누군가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 현장에서 먹을 15만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해놓고 나타나지 않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주문자는 “화재 현장에서 먹을 음식이

필요하다”며 A씨의 식당에 김치점 15인분을 전화로 주문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음식을 가지러 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주문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피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정준 기자